

## 産後調理院 在院 産母의 産後調理에 대한 認識 調査

\*우신향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우신향 한방병원 침구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정재중\*, 송호림\*, 배경연\*, 이용현\*, 임세영\*\*, 유상민\*\*, 김동일\*\*\*

### ABSTRACT

**A Study about the cognition and realities of postpartum care for  
O.M.D's role model of postpartum care**

**Jung Jae-Joong<sup>\*</sup>, Song Ho-Lim<sup>\*</sup>, Bae Kyeong-Yeon<sup>\*</sup>, Lee Yong-Hyun<sup>\*</sup>,  
Lim Se-Young<sup>\*\*</sup>, Yoo Sang-Min<sup>\*\*</sup>, Kim Dong-Il<sup>\*\*\*</sup>**

**<sup>\*</sup>Dept. of OB & GY, Wooshinhyang Oriental Hospital**

**<sup>\*\*</sup>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Wooshinhyang Oriental Hospital**

**<sup>\*\*\*</sup>Dept. of OB & 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urpose :** 1. To analyze the cognition and realities of postpartum care and to aid the spread of oriental medicine in postpartum care.  
2. Get a basic guideline of postpartum care home and O.M.D.'s role model of postpartum care.

**Methods :** We studied the cognition and realities of postpartum care with questionnaire from May 2005 to July 2005, in postpartum care home at Gangdong-gu and Seocho-gu. 147 puerperants answered us.

**Results :** Puerperants pay postpartum care for without regard to economic state. 59.2% of 147 puerperants replied that the reason of postpartum care at postpartum care home is for systematic care. Important selection guidelines of postpartum care home are expertness at infant and puerperant management. We can find that 78.2% of 147 puerperants will visit oriental medical clinic for postpartum care and 61.2% of 147 puerperants will take herb-medicine.

**Conclusion :** Puerperants has well-expectation in postpartum care by oriental medicine. There is much room for extension of oriental medical province in postpartum care. So continuous publicity activities about oriental medical postpartum care are required.

**Key Words :** postpartum care, puerperium, oriental medicine

## I. 緒 論

분만 후 첫 6주를 산육기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에 산모의 생식기관은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sup>1)</sup>. 이 시기의 모성은 임신과 분만의 경험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건강한 대상자이며, 이와 더불어 영아 및 새로운 가족 구조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여러 종류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간호를 필요로 한다<sup>2)</sup>.

산후조리 과정은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서 친모, 시모, 산모조력자로부터 산모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간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 양육 초기 단계의 여러 활동들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며,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예전에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던 산후조리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핵가족, 맞벌이 등 현대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함께 가사를 분담하지 않는 우리나라 가족 사회 문화 특성에 따른 소비자들의 욕구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생겨났다<sup>3)</sup>. 1996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산후조리원이란 업종이 등장한 이래 1998년부터 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각 업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다<sup>4)</sup>.

2005년 하반기 개정될 예정인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2006년부터 신고제를 도입 일정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개설이 가능하고, 현재 영업

중인 295개의 산후조리원도 신설되는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현재 산후조리원들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5월~7월 산후조리를 위해 서울시 강동구, 서초구에 위치한 사설 산후조리원 5곳에 입원한 산모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산후조리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산후조리기관의 역할과 의료인 및 보조 인력의 역할분담에 이바지하고, 향후 산후조리에서 한의사가 분담할 영역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후조리 입원 산모의 일반적 특성과 산후조리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산후조리원의 운영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이 분야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모색을 위해 이루어졌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2005년 5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서울시 강동구, 서초구에 위치한 사설 산후조리원 5곳에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입원한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응답한 147명의 환자를 조사대상군으로 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자는 5개 산후조리원의 원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

고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산후조리원 입원중인 산모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원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산모가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을 받아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고 연구목적 변수군의 상관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독립표본검정과 비모수적 방법인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을 실시하였다.

### Ⅲ. 結 果

#### 1. 조사대상군의 연령 분포

연령별 분포는 25세 이하가 3명으로 2.0%, 26세에서 30세까지가 63명으로 42.9%, 31세부터 35세까지 54명으로 36.7%, 36세부터 40세까지 18명으로 12.2%, 41세 이상이 9명으로 6.1%를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31.4세였다.

#### 2. 조사대상군의 학력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12명으로 8.2%, 대학원 졸업이 99명으로 67.3%, 대학원 졸업이 36명으로 24.5%였다.

#### 3. 조사대상군의 거주지별 분포

송파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26.5%, 강동구, 서초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14.3% 강남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12.2%,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10.2%, 성동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6.1%, 동작구, 용산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4.1%,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2.0%로 분포하였다.

#### 4. 조사대상군의 직업 분포

전업주부가 38.5%, 전문직 28.6%, 사무직 22.4%, 자영업 2.0%, 기타 8.2%로 분포하였다.

#### 5. 조사대상군의 월 평균수입

조사대상군의 월 평균수입을 조사한 결과 200만원 이하가 1.4%, 201~300만원 사이가 29.3%, 301~400만원 사이가 34.7%, 401~500만원 사이가 20.4%, 500만원 이상이 14.3%였다.(표 1.)

표 1. 조사대상군의 월 평균수입

	No.	%
200만원 이하	2	1.4
201~300만원	43	29.3
301~400만원	51	34.7
401~500만원	30	20.4
501만원 이상	21	14.3
Total	147	100.0

#### 6. 조사대상군의 동거인 구성원

조사대상군과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의 유형을 보면, 남편 혹은 남편과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117명으로 79.6%였고,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12명으로 8.2%, 남편과 친정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가 10명으로 6.8%, 기타로 조카, 시동생 등과 동거하는 경우가 8명으로 5.4%였다.(표 2.)

표 2. 조사대상군의 동거인 구성 분포

	No.	%
남편 혹은 남편과 자녀	117	79.6
남편과 시부모님	12	8.2
남편과 부모님	10	6.8
기 타	8	5.4
Total	147	100.0

#### 7. 조사대상군의 분만의 유형 및 선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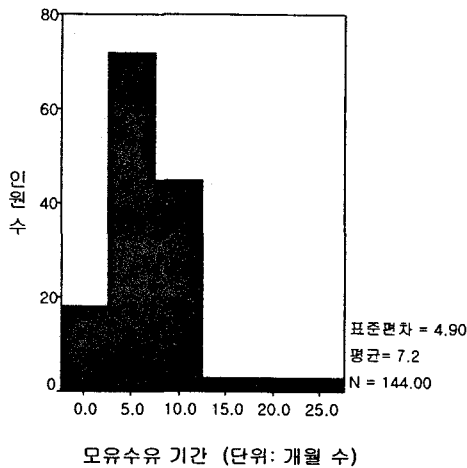
분만유형의 선택을 보면 자연분만 71.4%, 제왕절개 28.6%였다.

선택경위는 자연분만의 경우 57.1%가 본인의 의지로, 37.1%가 의사의 권유로 선택을 하였으며, 제왕절개의 경우 42.9%가 본인의 의지로, 50.0%가 의사의 권유로 선택을 하였다.

8. 조사대상군의 모유수유 여부 및 예정 기간

조사대상군 산모 모두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예정기간은 무응답 3명을 제외한 144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분포하여 평균 7.2개월이었다.(표 3.)

표 3. 모유수유 기간



9.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의 필요성과 그 이유

조사대상군 모두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27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120명이 복수응답으로 답하였고 조사대상군에서의 비율로 보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8.8%, 몸 상태를 임신 전 상태로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26.5%, 산후풍을 예방하

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4.3%,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1%, 유아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8%, 육아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7%였다.(표 4.)

표 4.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의 필요 이유(복수응답)

	No.	%*
산모건강	57	38.8
임신 전 상태로 빠른 회복	39	26.5
산후풍 예방	21	14.3
휴식	9	6.1
유아 건강	7	4.8
육아 교육	4	2.7

\*% 조사대상군 147명 전체에 대한 백분율

10. 조사대상군이 생각하거나 혹은 알고 있는 산후조리의 기간

조사대상군 중 2주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6.1%, 3주 이내는 12.2%, 4주 이내는 22.4%, 5주 이내는 2.0%, 6주 이내는 44.9%였다. 기타의견이 18명, 12.2%로 그 중 8주 이내라는 의견이 9명, 기타의견으로 3개월이라는 의견이 9명 있었다.(표 5.)

표 5. 조사대상군이 생각하거나 혹은 알고 있는 산후조리의 기간

	No.	%
2주 이내	9	6.1
3주 이내	18	12.2
4주 이내	33	22.4
5주 이내	3	2.0
6주 이내	66	44.9
8주 이내	9	6.1
기타(3개월)	9	6.1
Total	147	100.0

11. 조사대상군이 예정한 산후조리원에서의 조리기간  
1주 이내로 답한 경우가 2.0%였고, 2주 이내가 77.6%, 3주 이내가 19.0%, 기타가 1.4%였다.(표 6.)

표 6. 조사대상군이 예정한 산후조리원에서의 조리기간

	No.	%
1주 이내	3	2.0
2주 이내	114	77.6
3주 이내	28	19.0
기 타	2	1.4
Total	147	100.0

12.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는 이유

조사대상군의 26.5%는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59.2%는 산후조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8.8%는 신생아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기타 의견으로 여름이라는 계절적 이유로 집에서 조리가 어려워서는라는 응답이 5.4%였다.(표 7.)

표 7.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는 이유

	No.	%
산후조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39	59.2
산후조리를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87	26.5
신생아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	13	8.8
기 타	8	5.4
Total	147	100.0

13.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적정 예산

산후조리에 총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선으로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4.1%, 51~1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7%, 101~2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1%였고, 201~300만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5명으로 8.2%였으며 무응답이 2.0% 분포하였다.(표 8.)

표 8.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적정 예산

	No.	%
50만원 이하	6	4.1
51~100만원	48	32.7
101~200만원	78	53.1
201~300만원	12	8.2
무응답	3	2.0
Total	147	100.0

14. 조사대상군이 지출한 출산 후 병원 입원비용

먼저 출산 후 병원입원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무응답자가 6명 있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자연분만의 경우 병원입원 비용이 0원에서 150만원사이에 평균 76.41만원이었고, 제왕절개의 경우 12만원에서 160만원사이에 분포하여 평균 109.38만원이었다. 자연분만한 그룹과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그룹의 평균의 차는 -32.97이고 두 그룹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보기 위해 t-test를 해본 결과 p-value 가 0.008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조사대상군이 배정한 산후조리 예산

조사대상군이 배정한 산후조리 예산을 주관식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무응답 6명을 제외한 141명이 객관식으로 답하였다.

산후조리 총예산은 60만원에서 310만원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185.21만원이

었다. 항목별로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예산은 60만원에서 250만원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값은 142.77만원이었으며, 조사대상군 중 46.9%가 120만원이라고 응답하였고, 24.5%가 150만원이라 응답하여 120만원과 150만원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 도우미를 사용한 가정 요양비용으로는 무응답 6명을 제외한 141명중 40.4%가 3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로 평균 67.89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약을 통한 관리에 예산을 배정한 경우는 무응답 6명을 제외한 141명중 42.6%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평균 31.25만원을 배정하였다.

기타항목으로 2%가 산후조리를 위한 민간요법에 따른 건강식에 30만원을 배정하였다.(표9.)

표 9. 조사대상군이 배정한 산후조리 예산

	산후 조리원	가정 요양	한약*	기타**	총예산
최소 예산	60	30	10	30	60
최대 예산	250	120	100	30	310
평균	142.77	67.89	31.25	30	185.21

\*한약은 응답자의 42.6%만 예산배정

\*\*기타는 응답자의 2%만 예산배정.

16.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53.1%는 유아 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숙련도, 30.6%는 산모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숙련도, 8.2%는 시설의 위생, 4.1%는 주변의 권유, 2.7%는 연고지(집, 시댁, 친정 등)와의 거리, 1.4%는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응답했다.(표 10.)

표 10.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

	No.	%
유아 관리의 전문성 및 숙련도	78	53.1
산모 관리의 전문성 및 숙련도	45	30.6
시설의 위생	12	8.2
주변의 권유	6	4.1
연고지(집, 시댁, 친정 등)와의 거리	4	2.7
비용	2	1.4
Total	147	100.0

17.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의 유무

조사대상군의 75.5%는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고, 24.5%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표 11.)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있다고 응답한 사람 111명에서 무응답 32명을 제외한 79명중 하고 42.3%는 친정어머니, 13.5%는 도우미, 6.3%는 시어머니, 5.4%는 언니, 3.6%는 손윗동서라고 응답했으며, 28.8%는 무응답이었다.(표 12.)

표 11.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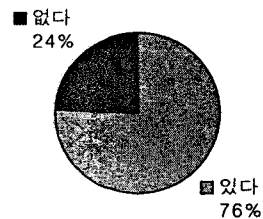


표 12.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 줄 사람 유형

	No.	%*
친정 어머니	47	59.5
도우미	15	19.0
시아머니	7	8.7
언니	6	5.4
손윗동서	4	3.6
Total	79	100.0

\*는 문항에 답한 79명에 대한 백분율

18. 산후조리원에서의 산모와 유아의 생활 분리 여부와 선호도

73.5%가 산모와 유아가 따로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4.5%가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무응답이 2.0%였다.

산모와 유아 생활양식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군 36.7%는 산모와 유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46.9%는 산모와 유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10.9%는 어느 것도 상관없다고 하였고, 기타로 5.4%는 적절한 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표 13.)

산모와 유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 54명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무응답 9명을 제외한 45명 중, 모유수유를 위해서라는 응답과 아기와 유대감을 가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46.7%였고, 아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7%있었다.

산모와 유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 69명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무응답 10명을 제외한 59명중, 76.3%가 산모의 휴식 및 산후회복을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16.9%가 유아 관리에 미숙해서, 7.8%는 유아의 위생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표 13. 산후조리원 산모와 유아 생활양식의 선호도

	No.	%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	54	36.7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	69	46.9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16	10.9
기타 (적절한 병행)	8	5.4
Total	147	100.0

19. 다음 출산에 이용할 생각인 산후조리원의 유형

만약 다음번에 출산하게 된다면 이용할 생각인 산후조리원의 유형에는 68.0%가 간호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응답했고, 8.2%는 조산원 6.8%는 양방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라고 응답했으며, 1.4%가 한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라고 응답했고, 15.6%는 어느 것도 상관없다고 답했다.(표 14.)

표 14. 다음 출산에 이용할 생각인 산후조리원의 유형

	No.	%
양방 의사가 운영	10	6.8
한의사가 운영	2	1.4
간호사가 운영	100	68.0
조산원	12	8.2
어느 것도 상관없다	23	15.6
Total	147	100.0

20. 출산 후 조리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 계획 여부

출산 후에 조리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이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78.2%였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14.3%, 모르겠다는 응답이 7.5%분포하였다.

21. 출산 후 한약을 복용 계획의 여부와 그 목적 및 이유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있다는 응답이 90명으로 61.2%였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36명으로 24.5%, 모르겠다는 응답이 21명으로 14.3%분포하였다.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그 목적을 물은 결과 체력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1.1%, 산후풍 예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8.9%,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8.9%, 오로 및 어혈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1.1%였다.(표 15.)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부작용이 우려되어서라는 응답이 61.1%, 체중증가가 우려되어서라는 응답이 13.8%,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11.1%, 금전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8.3%, 모유수유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5.6%로 분포하였다.(표 16.)

표 15. 출산후 한약 복용 목적

	No.	%
오로 및 어혈배출 원활	10	11.1
체력의 회복	37	41.1
원활한 모유 수유	17	18.9
산후풍 예방	26	28.9
Total	90	100.0

표 16. 출산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없는 이유

	No.	%
부작용 우려	22	61.1
모유수유에 악영향우려	2	5.6
체중 증가우려	5	13.8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11.1
금전적 부담	3	8.3
Total	36	100.0

22. 차후 산후풍이 발생할 경우 선택할 치료기관

만약 차후에 산후풍이 발생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95명 64.6%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21명 14.3%가 양방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1명 21.1%는 민간요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IV. 考 察

산후조리는 산육기 동안에 산모가 신체적으로 임신전의 상태로 회복해가면서 정신적으로 영아 및 새로운 가족 구조에 적응하는 시기이며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서 친모, 시모, 산모조력자로부터 산모 사건의 신체적 심리적 간호와 신생아 양육 초기 단계의 직접,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며 핵가족화가 되어감에 따라 예전에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던 산후조리가 더 이상 가족내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산후조리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육은 임신과 같이 하나의 생리현상이지만 대체로 허약한 상태이므로 생활과 섭생을 통하여 산육의 복구를 촉진하고 허약으로 인한 합병증 내지 병발증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력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sup>5)</sup>.

김주형 등<sup>6)</sup>의 보고에 의하면 남편 외 산후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경우 81.4%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였고, 3명인 경우 20%만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정도로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의 정도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가능성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최



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의 감소 및 경제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건강유지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sup>10)</sup>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육기 초반에 산모는 가장 큰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가 산모와 유아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5년 5월~7월 산후조리를 위해 서울 강동구, 서초구에 위치한 사설 산후조리원 5곳에 입원한 산모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산후조리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147명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 분포하고 모두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군의 거주지는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강동구와 서초구이거나 그 인접지역인 경우가 67.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군의 직업분포는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61.5%로 전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허지원과 김성란<sup>2)</sup>의 연구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52.48%였던 것에 비해 조금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월 평균 수입을 통해 경제력을 살펴본 결과 200~300만원사이인 경우와 300~400만원 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63.3%로 다른 범위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표 1.)

조사대상군의 동거인 구성을 보면 부부나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79.6%로 나타났는데 가족 이외에 산후조리를 도와줄 전문기관이나 도우미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표 2.)

모유 수유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산모 모두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어 모유수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기간은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주로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분포하였다.(표 3.)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두가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산후조리원 입원자로 실제적으로 산후조리를 받기 위해 입원한 자이기 때문에 다소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생각되며, 산후조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산모의 건강, 임신전 상태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산후풍 예방 등을 언급하였다.(표 4.)

조사대상군이 생각하거나 혹은 알고 있는 산후조리기간으로는 6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44.9%로 가장 많았으나, 3주 이내로 과도하게 짧은 기간을 설정하거나 3개월로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총 24.4%에 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5.)

조사대상군이 예정한 산후조리원에서 의 조리기간은 2주라고 답한 경우가 77.6%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통하여 볼 때 실제 산후조리원 교육이나 운영을 2주에 맞추어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1주일 정도의 기간을 더 설정하

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59.2%가 산후조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26.5%만이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김주형 등<sup>5)</sup>의 보고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의 정도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의 조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제 산후조리원 입원 산모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볼 때는 단순히 산후조리를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 향상과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좀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7.)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적정예산은 101~200만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53.1%로 가장 많았고, 51~100만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32.7%였다.(표 8.)

'조사대상군의 월 평균수입'과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적정 예산'의 관계에 대한 통계처리결과 상관계수는 0.226 으로 매우 낮았다. 즉 월평균 수입과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적정예산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산후조리로 배정한 예산은 총 60만원에서 310만원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185.21만원이었다.(표 9.)

조사대상군의 월평균수입과 산후조리 총 예산의 관계에 대한 통계처리 결과 상관계수는 -0.018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서 월평균수입과 산후조리 총예산과의 관련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배정한 산후조리 총예산을 위의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적정 예산'의 문항과 같은 단위로 분

류하여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적정예산'과 '조사대상군 본인의 산후조리 예산'과의 그룹간의 분포가 동일한지 검정하기 위해서 비모수적 방법인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을 해본 결과 p-value 가 0.003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두 그룹간의 분포 차이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예산과 실제로 배정한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고 4.3%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예산보다 적은 예산을 배정하였고, 45.7%가 본인이 적정예산과 같은 범주에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50.0%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산후조리에 배정하였다. 다시 말해 조사대상군의 절반은 본인 스스로 생각한 적정예산보다 더 많은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도우미를 사용한 가정 요양비용으로 40.4%가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지망 부족으로 인하여 산후조리원 퇴원 후에도 산후조리와 육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약을 통한 관리에 예산을 배정한 경우가 42.6%로 평균 31.25만원을 배정하였다.(표 9.) 출산 후 한약 복용 계획 여부에 관해서는 61.2%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 예산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약 복용계획이 있는 사람 중 70%가 체력의 회복이나 산후풍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고, 오로 및 어혈 배출을 원활히 한다거나 모유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19.) 출산 후 한약 복용 계

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라는 응답이 61.1%를 차지하였다. (표 20.) 이를 토대로 볼 때 출산 후 산모의 한약 복용 비율을 증가 시키려면 다양한 한약의 장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한약에 대한 막연한 부작용의 우려나 모유 수유에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바탕이 될 연구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유아관리에 대한 부분을 53.1%가 선택하여 였고, 산모관리에 대해서는 30.6%가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산후조리를 목표로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였으나 산후조리를 하면서 쉬는 동안 유아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서 유아관리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만약 다음번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용할 생각인 산후조리원 유형에 68.0%가 간호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응답하였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하여 한의사가 단독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경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김소연 등<sup>12)</sup>의 연구에서도 한의사 중심으로 산부인과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와 영양사, 물리치료사 및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의 유무에 관한 질문에서는 75.5%가 있다고 응답했고 24.5%는 없다고 응답했다. (표 11.)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59.5%는 도와줄 사람이 친정어머니라고 응답했고, 19.0%는 도

우미, 8.7%는 시어머니라고 응답했다. (표 12.) 이를 보면 산후조리에서 친정어머니의 역할이 아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유아의 생활양상의 선호도에서는 산모와 유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가 36.7%, 산모와 유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가 46.9%,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는 응답이 10.9%였다. 산모와 유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에서는 산모와 유아의 정서적 교감이나 모유수유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산모와 유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에 산모의 휴식과 회복, 유아관리의 미숙을 그 이유로 응답하여 출산 후 산모의 체력적 부분과 육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산 후 조리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할 계획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78.2%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차후 산후풍이 발생할 경우 선택할 치료기관으로서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64.6%분포하여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에서 한의학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약복용에 대한 막연하고 근거 없는 염려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학회 혹은 협회차원의 계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의학에서 산후조리에 대해 언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千金要方》<sup>8)</sup>으로 100일 동안 조리할 것을 제시하였고 조리를 잘 못할 경우 '褥風'이 생긴다고 하였고 《婦人大全良方》<sup>9)</sup> 《太

平惠民和劑局方》<sup>10)</sup> 《葉天士女科》<sup>11)</sup> 100일에서 120일의 조리기간을 제시하였고, 그 후 여러 의서에서 신체적인 안정과 음식조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산후조리에 대한 한의학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일반화하여 이를 통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산후조리의 개념 및 세부 시행사항을 정립하여, 한의학의 의료영역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結 論

저자는 2005년 5월~7월 산후조리를 위해 서울시 강동구, 서초구에 위치한 사설 산후조리원 5곳에 입원한 산모 147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상관없이 공감하고 있다.
2. 산후조리의 기간에 대해서는 6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과도하게 짧거나 길게 알고 있는 경우가 24.4%에 이르러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는 주로 2주를 예정하고 있었다.
3.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많았는데 산모들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산후조리의 예산으로는 적정선을 묻는 질문에는 그 응답의 분포가 주로

51~200만원 사이였으나 본인이 배정한 예산은 이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산모가 적정 산후조리비용보다 본인이 산후조리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군의 경제력과 조사대상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적정예산이나 조사대상군이 배정한 예산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에 있어서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지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산후조리원의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아의 관리를 중요시 하는 경우가 산모의 관리를 중요시 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6.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유아 생활 양상의 선호도에서는 산모와 유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가 36.7%, 산모와 유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가 46.9%였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모유수유와 산모와 유아간의 정서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 경우는 회복 및 휴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아 산모들이 육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7. 출산 후 한약 복용 계획은 61.2%가 있다가 응답했으나 실제 예산을 배정한 경우는 42.6%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산후조리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계획인 경우가 78.2%에 이르고, 차후 산후풍이 발생할 경우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4.6%분포하여, 출산 후 관리에서 한방의료의 긍정적인 이미지이며, 산후관리에서 한방의료의 영역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산후 한약 복용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와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 증진에 한의학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투 고 일 : 2005년 07월 28일
- 심 사 일 : 2005년 08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8월 10일

244-245.

9. 陳自明. 김동일 등 譯. 婦人大全良方. 서울: 光山出版社. 2003; 683-688.
10.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서울: 선풍출판사. 1993; 268.
11. 葉天士. 葉天士女科. 서울: 대성문화사. 1992; 297-298.
12. 김소연, 조홍윤, 손희천. 산후조리에 대한 전통·양방·한방적 비교와 한방 산후조리원의 운용에 대한 고찰. 대한기공의학회지. 2001; 5(0): 199-228.

### 參考文獻

1. 武之望. 濟陰綱目. 中國醫學叢書. 서울: 大星出版社. 1990; 54.
1. 한의부인과학 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下).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1: 85.
2. 허지원, 김성란. 산후조리의 실태 및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 14(1): 409-424.
3. 최정.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에 대한 산모의 요구도 및 만족도.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정우석, 조홍윤, 유심근. 산후조리원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향 및 관리지침에 대한 고찰. 대한기공의학회지. 2002; 6(0): 181-206.
5.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 행림출판사. 1990; 98-108.
6. 김주형 등.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1; 7(1): 63.
7. 이용호, 이태균. 산후관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 13(1): 500-517.
8. 孫思邈. 千金方.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9):